전남도 '섬 교과서' 만든다

15가지 키워드 중심
섬 다양성·특수성 홍보
올 상반기 발간 예정

다도해(多島海)를 품은 전남도가 '섬 교과서'를 만든다.

민선 7기 전남도의 역점 시책 가운데 하나인 블루투어(Blue Tour)의 핵심 소재인 전남의 섬을 소개하면서 다양한 매력을 누구나 알기 쉽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전남도는 18일 "최근 섬의 가치가 재조명 되고 있는 가운데 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알릴 수 있는 '섬 교과서'를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남도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블루투어의 핵심 소재인 '섬과 바다'를 일반이 알기 쉽게 제작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 장학사, 섬지역 교사 등과 집필 방향 회의를 거쳐 올 상반기 발간을 목표로 지난 3월 23일 제작에 돌입했다. 교재 제목은 '섬 교과서, 섬을 읽는 15가지 열쇠'로 정했다.

내용은 ▲섬과 바람 ▲섬과 바닷길 ▲섬과 물 ▲섬의 농업 ▲섬과 무인도 ▲섬과 유배 ▲섬 공동체 ▲섬과 목장 ▲섬의 예술 ▲섬과 소금 ▲섬 음식 ▲섬의 의례 ▲섬의 어업 ▲섬과 산 ▲섬 정책 등을 다룬다. 우리나라의 섬 전반을 다루며 전남지역 섬을 보다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집필은 전남도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한다. 이경엽 도서문화연구원장을 비롯해 강제윤 섬연구소장,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원, 최성환 도서문화연구원 등 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교재 완성도를 높이려고 개념어와 도록(圖錄) 등을 일목요연하게 삽입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장학사와 섬 교사, 섬 주민 등이 직접 교재 검수, 자문 등 편집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남도는 섬 교과서 제작이 6월 중 완료되면 약 200부를 우선 제작해 올 7월 섬 학교로 발령받는 교사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전남도 김상국 섬해양정책과 주무관은 "섬이 갖는 중요성은 점차 커지는데 국내에는 섬 관련 교과서는 물론 교양서도 빈약하다"며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섬에 대한 이해와 관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섬 교과서 배부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간에 앞서 섬지역 교사들, 전남지역 역사·지리 교사와 함께 섬 교과서 발간 설명회도 진행한다.

전국에는 섬 3352개가 있다. 전남에는 전체의 65%인 2165개가 쏠려 있다. 유인도 역시 전체 465개 중 272개(58.5%)가 전남에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주의 종 타종식 18일 오전 5·18민주광장내 민주의 종각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김종효 광주시행정부시장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5·18단체 관계자들이 '민주의 종'을 타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민주당 여수을 김회재

"지역 인재 고향서 꿈 펼치도록 할 것"

여수산단 재도약으로 경제활성화
섬진강유역 환경청 설립 추진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에 주력
여순사건 진실규명·명예회복 필요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57·사진) 여수을 당선인은 18일 "지역 인재들이 고향에서 꿈과 희망을 안고, 터 잡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선거 운동 기간 지역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람이 모이는 여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해양도시로서 여수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국회 안팎에서 조성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우선, 지역 인재 고용 비율도 지금보다 두 배 확대하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선거 공약을 재확인했다. 여수산단이 조성된 지 4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환경·노동 분야에서 시민 건강권을 지키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선거 기간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노동자건강복지센터 설치를 공약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 전 지역과 경남 일부 지역, 제주도까지 그 관할구역이 방대하고 청사 역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이 위치한 남해안권의 대기오염 및 유해물질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남 동부권의 여수와 순천 광양과 경남 남해, 하동 등 남해안 권역을 묶어 섬진강유역 환경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동자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 작업복 세탁소와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동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도 김 당선인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는 "여수는 의료시설이 열악하다"며 "순천대에 의대를 유치하고, 여수에는 지역 거점 종합병원을 설립해 여수지역 의료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성공과 2022년 민주정권 재창출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회 등원 후에는 "분열과 대립, 갈등과 반목의 싸움 정치를 끝내고 민생해결 정치, 서민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로 한국 정치가 바뀌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며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성을 다해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1호 법안으로는 전남 동부권의 다른 당선인들과 마찬가지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김 당선인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국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며 "목표한 의제들을 꼭 법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여수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그러면서 "국민을 편 가르지 않는 통합의 정치, 생산적인 정치가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 데 원동력"이라며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대결이 아닌 협치와 상생의 정치문화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5만5237표(71.58%)를 득표, 1만5302표(19.81%)를 얻은 무소속 권세도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여수 출신으로 순천고를 나와 연세대(법학)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연수원 제20기를 수료했다.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 부산고검 차장검사, 광주지검장 등을 지내고 2018년 의정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폭염의 계절 '클린로드 시스템' 본격 가동

도로에 물 뿌려 열섬현상 완화
문화전당 인근 쿨링포크 시스템

광주시가 폭염의 계절을 맞아 도로 위 무더위를 식혀주고, 미세먼지를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은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남로·상무대로 지하철역에서 유출되는 청정 지하수를 활용해 새벽과 낮 시간대 도로 위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 초 동구 금남로 문화전당~금남로4가역 0.52㎞ 구간, 광산구 상무대로의 극락교~광주송정역 3.5㎞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했다.

클린로드는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한 노즐을 통해 지하수를 도로 위에 뿌려 세척하는 친환경 시스템이다. 시는 운전자 안전을 위해 금남로 2개소와 극락교 구간 양측 도로 6개소에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는 한편 온도, 습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상 관측 장비도 배치했다.

시는 앞서 문화전당~금남로공원에 이르는 350m에 상수도를 이용해 미세 물 입자를 분사하는 쿨링포그(Cooling Fog) 시스템도 설치하고, 가동을 준비중이다. 쿨링포그 시스템은 미스트 노즐 45개를 통해 미세 물입자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것으로, 주위 온도를 3~5도 정도 낮추고 대기 질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클린로드 시스템이 설치된 문화전당~금남로4가역 구간은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며, 극락교~송정역 3.5㎞ 구간은 폭염대책기간인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동계 사료작물' 63만t 일제 수확

6월 초 모내기 전까지 확보
수입건초 대체 3269억 효과 기대

전남도는 18일 "6월 초 모내기 전까지 동계 사료작물 63만t을 일제 수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수확 장비가 필요한 시·군 경영체에 트렉터와 예취기, 결속기 등 구입비 141억원,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588억 원을 지원해 수확을 돕기로 했다.

전남도는 하계 사료작물도 쌀수급 안정화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추진, 약 10만t의 조사료를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도내 재배지 5070㏊에 수단그라스를 비롯해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을 재배한다. 조사료 (粗飼料)는 건초나 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다.

전남도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청보리 등 동계 사료작물로 편중된 조사료 생산 체계를 옥수수, 수단 등 하계 사료작물 생산 확대로 개선할 계획이다. 축산농가가 연중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전남도는 이 같은 조사료 재배에 따른 직·간접효과가 연 3269억원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료비 절감 1420억원, 조사료직불금 184억 원, 조사료 재배 수익 970억원, 수입건초 대체 695억원 등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Nim e Bbong Solar Energy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